

사회

기름값 인하 발표 결국 국민 우롱

자영주유소 “정유사가 도매가 ㄹ 당 50원 만 내렸다”
정유사 “주유소가 동참 꺼려” 석유공사 “우린 몰라”

결국 소비자만 속았다.
정유사들이 지난 7일 발표해 ㄹ 당 100원 기름값 인하가 실제 소비자가...

다. 광주지역 자영 주유소는 총 주유소 가운데 85%를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100원 인하'를 거의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남구 진월동에서 개인 주유소를 운영하는 나모(37)씨는 “지난달 말 보통휘발유를 ㄹ 당 1850원에 구입했는데, 정유사들의 발표(100원 인하)대로라면 현재 구입가가 1750원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50원 정도 내린 1804원에 사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오히려 20~30원을 인상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는 등 언론에 발표된 것과 속사정은 완전히 다르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외면한 채 정유사와 주유소 업체만 압박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기름값 인하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항의와 불만이 잇달아 치자 “해당 정유사로 전화하라”며 책임을 회피중이다.

또 지식경제부는 10일 주유소들이 정유업체의 공급가격 인하폭에 비해 판매가격을 제대로 내리지 않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 이를 공개하는 ‘주유소 블랙리스트’를 발표하겠다는 등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직장인 최모(43)씨는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 인하는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거의 체감할 수 없는 ‘사기발표’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직장인 김모(52)씨도 “여러 곳의 주유소를 가봤지만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기름값을 내린 주유소는 찾기 힘들었다”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정책들은 그만 나왔으면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국내 정유사들이 지난 7일부터 기름값을 ㄹ 당 100원을 인하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0일 광주의 한 주유소에서 여전히 가격인하분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으로 기름이 팔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사라진 도박 수익금 7억원 돈관리 맡은 매형이 빼돌려

김씨의 발에 숨겨둔 거액의 도박 수익금 가운데 7억원이 사라졌던 사건은 돈 관리를 맡았던 매형의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처남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27억원의 도박 수익금을 숨겨주고 일부를 유용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3)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처남 이모(44)씨로부터 27억원을 넘겨받아 지난해 6월 비밀리에 김씨서 금주면 선암리 자신의 발에 묻어 숨겨왔던 혐의다. 이 돈은 처남 이씨 형제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였으며, 수감되기에 앞서 이씨에게 맡겨졌다.

이후 매형 이씨는 이 가운데 4억원의 수익금 가운데 2억9천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처남이 출소에 이를 추궁할 것을 걱정하다가 돈을 묻어둔 벌 근처에서 조경수 작업을 했던 중장비 운전기사 안모(52)씨에게 덮어씌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취재본부 = 홍윤선기자 hnews@

“서구청, 주민 반대 민원 때문 장례식장 건축 불허는 위법”

광주지법 판결
건축법상 제한 사유가 없는데도 구청이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상소회사는 지난해 9월 15일 광주지법 서구 농성동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신축하려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경현)는 10일 모 상소회사가 광주 서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구청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례식장 허가를 신청한 대지가 중심 미관지구에 속해 소광·복합 뉴타운으로 조성될 계획이라는 점만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장례식장을 혐오 또는 기피시설로 볼 수 없고, 구청이 단지 반대 민원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상소회사는 지난해 9월 15일 광주지법 서구 농성동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신축하려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낙제점 시민의식 ... 이렇지들 맏시다

무등경기장 주변 쓰레기·암체주차 야구경기 있는 날마다 인근 주민 큰 고통

프로야구 관중의 상당수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숨에 휘해 고성방가를 하면서 광주 무등야구장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경기장 주변 아파트에는 야구팬들이 몰고 온 승용차들이 수시간 동안 무단으로 주차돼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7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일동 주공아파트 입주주민들은 지난 5일 무등야구장에 온 야구팬들이 타고 온 각종 차량이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주요 도로에 암체 주차를 일삼으면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며 구청 홈페이지에 시정을 민원을 제기했다.

입주민들은 특히 주공아파트 주변 도로 왕복 8차선 도로 중 2개 차선을 제외한 나머지 차선에 각종 차들이 불법 주차하면서 사고 위험은 물론 퇴근길 혼잡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주민들은 또 주말·휴일 낮

경기가 치러지면서 경기장에 따른 소음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만취객들의 고성방가나 난동은 견디기 힘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야구팬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를 치우는 문제도 골치거리다.

주공아파트 입주 주민 최모(34)씨는 “프로야구 홈 경기장 있는 날이면 평소 넉넉했던 주차장이 외부 차량으로 꽉 들어찬다”면서 “KIA 타이거즈가 연패에 빠지거나 역전해 당하는 날이면 성난 관중이 아파트 주변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도 찾아 불안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최근 주공아파트 입주주민들로부터 불법 주차장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홈 경기장 열리는 날에는 불법 주차장 단속반을 현장에 배치,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봄꽃 조경 도로변 화분 날마다 도난

두암3동주민센터 주변 벌써 200여개 사라져

“제발 도로변에 놓아둔 화분 좀 가져가서 마세요.”

광주의 한 주민센터가 도심 미관 개선을 위해 도로변에 놓아둔 화분이 시도때도 없이 사라지면서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다. 심지어 화분에 심어둔 꽃을 꺾거나 아예 꽃을 뿌리째 뽑아 가는 경우마저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 북구 두암3동 주민센터는 지난해 25일 주공 2단지 인근 도로와 부영아파트 앞길·먹자골목 등 쓰레기 상습 불법 투기구역 200곳에 철쭉 200그루·팬지 3000그루·국화 100그루 등 3300그루를 심거나 설치했다.

쓰레기 상습 투기를 막기 위한 대비책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고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놓아둔 화분이 하루 평균 4~5개씩 없어지거나 파손

되고 있다. 또 꽃을 꺾어가거나 뽑아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두암3동 주민센터는 사라지거나 훼손된 화분을 보수하기 위해 꽃나무를 다시 심을 뿐만 아니라 화분을 새로 구입하는 등 불필요한 일들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라지거나 훼손된 화분이나 꽃은 무려 200개가 넘는다.

북구 두암3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매년 수백 그루의 화분과 꽃이 일부 주민들에 의해 도난당하거나 훼손되고 있다”며 “별다른 생각없이 화분을 건드린 사람들에 의해 깨끗한 동네를 만들고자한 주민 대다수의 노력이 허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8289) 김종두



이번엔 교수가... KAIST 또 자살

최근 KAIST(한국과학기술원)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로 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교수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오후 3시에 대전서 유성구 전민동 한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KAIST 교수 A(55)씨가 숨져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가스배관에 목을 매 숨져 있었고 평소 업무스트레스 등을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서가 있는지, 지병 유무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연필뉴스

고객 과태료 가로챈 렌터카 대표

○교통법규를 위반한 고객들의 과태료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가로챈 렌터카 대표 등이 경찰서행.

○1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모 렌터카 대표 김모(35)씨 등 2명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객 30명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가 날아오자 “과태료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속여 1명당 4~10만원씩, 60차례에 걸쳐 300여 만원을 받아챘었다는 것.

○김씨 등은 교도소에 복역 중인 강모(64)씨의 명의를 도용해 차량 대여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정기관에는 운전자를 허위로 알려주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는데, 복역 중인 강씨 명의로 수십 차례나 과태료 통지서가 발부된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달미.

이 은행은 또 부실 담보 등을 통해 2000억원 가량을 대출했으며, 규정을 어기고 서울에 본사 사무소를 차려 놓고 대출업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레에 걸쳐 목포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강직]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검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9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검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회복지, 농업기술직
9급 문제풀이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검찰직/교정직
법원/경찰직 강의를 위한 공무원 합격 특강
9급 야간반 강의시간: 19:00~22:00 (3개월 완성)
농업기술직, 직강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 특강
농업직/기술직 강의시간: 09:00~15:30 (2개월 완성)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률 배출!
명품 '강력단과' 영·연, 귀, 행정, 행정, 국어, 법학, 과학, 경제, 교육
강의시간: 15:30 ~ 18:30 (2개월 완성)
합격률 소망직 (전문) 시험장과 동일, 체력측정기 도입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개강 1월